지역 최대갈등 혁신도시 'SRF 분쟁' 일단락

2017년 시험가동 후 6년 대립
나주시 항소 취하·한난도 양보
봉합수순…조만간 협상테이블

지역사회 최대 갈등 사안 중 하나였던 빛가람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송 취하 등 서로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6년여를 끌어온 SRF사태는 봉합단계로 들어서게 됐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난방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심' 소송을 취하했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 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 법률 전문가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취하한 나주시는 조만간 난방공사 측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방침이다.

나주시와 난방공사의 SRF분쟁은 6년 전인 지난 2017년 시작됐다.

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고형연료제품)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메인 발전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 전용의 보조발전시설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정상가동 되고 있지만, 2017년 9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난방공사 간 갈등으로 가동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역주민의 반대와 나주시의 연료 사용인가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SRF발전시설은 5년 넘게 가동되지 못했고, 난방공사는 값비싼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첨두부하보일러를 가동해 혁신도시 아파트 등지에 난방을 공급하면서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나주시와 난방공사간 갈등은 잇단 법적소송으로 이어졌다.

2017년 12월 나주시의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제기를 시작으로 양측은 10건의 소송을 이어오며 극단의 갈등상황을 보여왔다.

이번에 나주시가 항소를 취하한 소송은 지난 2021년 10월 난방공사에서 사용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나주시가 연료 사용허가를 취소하자 난방공사가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나주시는 같은해 9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 취하를 결정했다.

나주시의 이 같은 결정에는 지난해 7월 윤병태 시장이 취임하면서 SRF발전소 해법을 찾기 위한 나주시와 난방공사의 발걸음이 속도를 낸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소송 취하에 난방공사 역시 나주시와 전임 강인규 나주시장, 발전소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무원들은 제외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태 시장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감시와 주민건강 영향조사 등도 한난과 협의하겠다"며 "시민소통과 상생, 주민 건강권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 기탁 광주 동구는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지역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구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87만원을 지난달 28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 /동구 제공

"732만 재외동포 전담 최적지는 광주"

시, '재외동포청' 유치 의향서
국제 네트워크·인프라 등 강점

광주시가 732만 재외동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외동포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 조직 개편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교부에 유치 희망 의향서를 전달했다.

시는 재외동포청이 들어서면 정부기관 유치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민주·인권·포용도시 광주의 면모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포용도시 광주는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풍부한 인프라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재외동포청 입지의 최적지다"며 "공공기관이 거의 없는 광주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배려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수혜 대상에 광주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 전국 최초로 선도적인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는 전쟁 피난 고려인 동포 귀환 운동을 벌여 900여명의 고려인동포 국내 귀환을 돕고 있다.

재외동포 정착과 지원에 필요한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와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힌다.

매년 유네스코 등과 함께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오는 5월 중앙아시아 재외동포들의 거점역할을 담당할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가 광주에서 출범한다. 20개국 40개 도시와 자매·우호교류, 국제교류 센터·차이나 센터·주광주총영사관 등 다양한 국제관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지역 동포사회에서도 광주시의 동포청 유치 추진을 반기고 있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광주는 포용과 환대의 도시이자 그동안 귀환 고려인동포를 광주시민으로 섬기며 돌봐온 동포사회의 모범도시로 재외동포청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유치의사를 전달한 광주시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과 함께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 관계 부처에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시, 100만원씩 총 188대

광주시는 1일 "노후경유차 폐차와 매연 배출량이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2일부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은 대당 100만원씩 총 188대를 지원한다.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뒤 1t 이하 LPG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24일까지이다. 선정 결과는 4월 초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선정자는 14일 이내 신차 구매 계약서를 광주시 대기보전과로 제출하고, 4개월 이내 폐차와 신차를 구입한 뒤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공무직 12개 직종 35명 채용
광주시, 21일~23일 원서접수

광주시는 1일 "2023년도 공무직 통합 채용을 통해 시청과 산하 사업소 등에서 근무할 공무직 12개 직종 3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직종별 인원은 ▲CCTV관제원 4명 ▲가축방역보조원 1명 ▲녹지관리원 1명 ▲상수도검침원 3명 ▲시설관리원 2명 ▲안내원 4명 ▲야간연장개관운영보조원 1명 ▲여성긴급전화상담원 2명 ▲전시관해설원 1명 ▲청사미화원 8명 ▲취사관리원 7명 ▲도로보수원 1명이다.

응시 자격은 성별 상관없이 공고일(2월 28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광주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응시 연령은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이다. 단, 고령자 우선 고용 직종인 청사미화원과 상수도검침원은 만 50세이상 60세 미만이다.

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한다. 1차 필기시험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차 서류전형과 3차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21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하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시험인사정보-우리시 공무직'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미취업 청년 자격증 취득 지원
시, 3,500명에 최대 20만원

광주시는 1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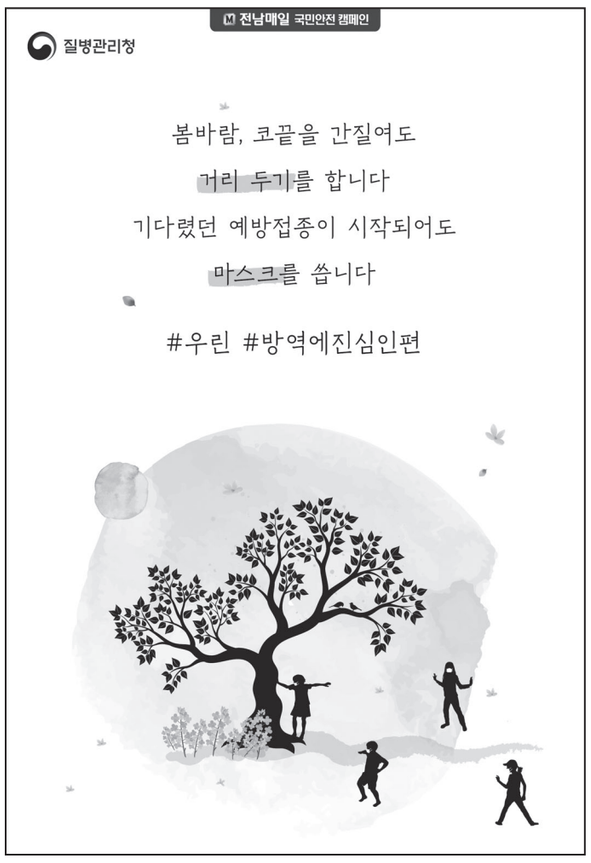
구직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은 어학 및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한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1회에 한해 2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불한 응시료에 대해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광주시 2,000명, 자치구 1,500명 등 총 3,50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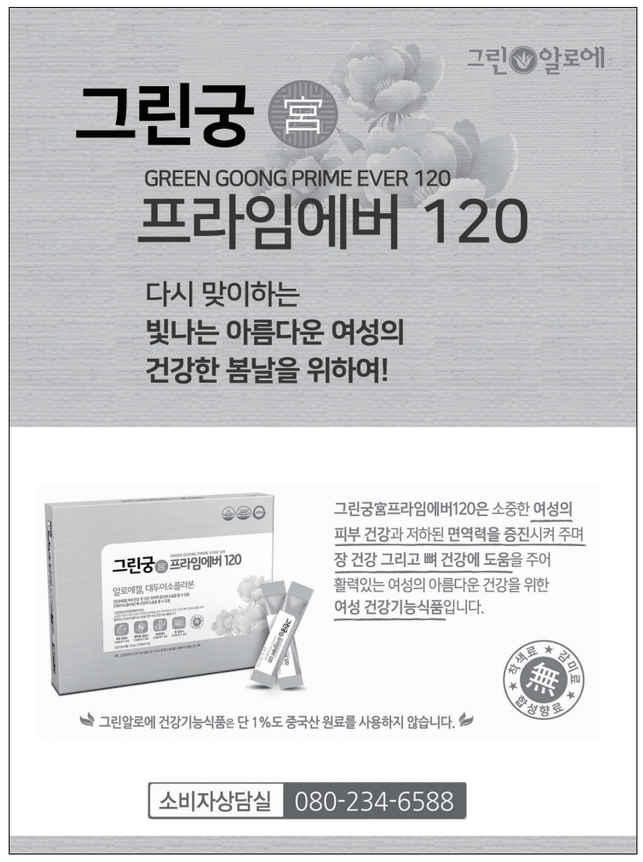
신청 자격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미취업 청년(재학생 포함)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능 자격시험은 토익(TOEIC), 토익스피킹(TOEIC Speaking), 오픽(OPIC), 텝스(TEPS), 지텔프(G-TELP) 등 어학시험 5종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544종이다. 신청방법은 시험에 응시한 뒤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 사실 확인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센터 홈페이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광주 서구·남구 홈페이지, 북구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산구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현 시 청년정책관은 "구직청년이 진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기회를 높이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상속한정승인 공고

사건번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느단62 상속한정승인
공고인(청구인) : 김한솔, 김예솔
피상속인 : 망 김형출
(620221-1＊＊＊＊＊＊, 2023년 1월 7일 사망)
최후주소 : 전남 구례군 산동면 탑동1길 27-33
법정상속인 김한솔, 김예솔의 피상속인 망 김형출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 하여서 한 2023년 2월 7일자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2023년 2월 23일자로 수리 되었으므로, 위 망인에 대한 채권자 및 유증을 받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 익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2023년 3월 2일
공고인(청구인) : 김한솔 (010-2600-0568)
채권신고장소 : 전남 여수시 선원4길 67 204동 1206호 (우미이노스빌)